

# 신안 자은도 '피아노 섬' 유튜브 조회수 579만 기록



화제가 됐던 '피아노 섬, 자은도' 영상이 조회수 579만 회(1월 17일 오전 9시 기준)를 넘

어섰다. 이는 신안군 관련 유튜브 동영상 중 역대 최대 기록이다.

## 작년 10월 20일~22일까지 4만 명 관람객 다녀가 신안군 관련 유튜브 동영상 역대 최대 조회수 달성

해당 영상은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을 홍보하기 위해 신안군이 제작한 것으로, 자은도 백길해변을 배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 영상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일 조회수가 상승하고 있다.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yrmCMswiQK4>)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작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신안군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 일원에서 열려 3일 동안 약 4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신안군은 문화의 달 행사 이후 피아노의 섬 자은도의 높아진 관심과 인기의 기세를 몰아 '피아노 섬, 자은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2월 말경 자은도 해변 곳곳에 피아노를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자은도를 방문하는 일반관광객과 피아니스트 등 누구나 연주와 공연, 버스킹 등 자유롭게 피아노를 이용할 수 있다. 작년 문화의 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1004뮤지엄파크에서는 올해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피아노 축제가 열릴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피아노 섬, 자은도' 유튜브 영상이 꾸준히 사랑받아 570만이 넘는 역대 최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문화의 달 행사 이후 자은도와 피아노 섬에 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아노 섬, 자은도'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 합평군, 2024년도 안전 문화운동 대대적 전개

합평군은 16일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도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합평군은 겨울철 화재 예방 캠페인과 화재 위험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캠페인, 그리고 교통안전캠페인 등 계절별, 테마별 캠페인을 월 1회 이상 추진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군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이용소방대, 모범안전자회 등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합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1월 중 구성하고 2월에 위촉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군은 ▲협소도로 공용소화기 보관함 설치(150개소),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주거에 소화기 및 경보감지기 보급(각각 300개), ▲침수 위험 주민 구명조끼 보급(450개), ▲합평군 주요 고속도로휴게소 생명보관함 설치(4개소), ▲지능형 CCTV 추가 도입(200조)과 함께 저화질 CCTV를 고화질 사양으로 교체하는 등 군민의 안전활동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합평=김광훈기자

## 영광군, 수상안전 전문 인력 무료 위탁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역 내 수상안전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요원 자격증 취득 무료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수상안전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한다.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훈련생을 모집 선발할 계획이며, 상반기 내 제1기 20명, 제2기 20명 총 40명을 2회에 걸쳐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영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 수강을 위해 우선 군에서 실시하는 사전평가(자유형 50m, 평형 50m, 잠영 10m)를 통과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총 3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검정을 합격하여야 수상 안전요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군은 매년 실내수영장 운영과 여름철 해수욕장 및 워터파크 개장 시 수상안전 전문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지인력 및 용역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장애인 수영장이 완공하여 정상운영하는 2025년에는 인력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상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으로 수상안전 인력난 해소와 나아가 지역민의 취업 기회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 안전요원 양성 교육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우수한 교육 수요자의 능력이 일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무안 겨울 송어 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 소비촉진 행사 등 풍성한 이벤트

무안군은 오는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024 무안 겨울 송어 축제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한다.

판매행사는 농산물 소비 촉진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가래떡, 고구마구이 체험을 비롯해 다트, 링 던지기, 깜짝 경매 이벤트 등

이 진행되어 한층 재미와 즐거움을 주어 축제장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행사로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침체한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무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오종 농업정책과장은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이 부딪친 농가들을 돕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홍보를 위해 수도권 직거래 행사, 각종 박람회 참가와 우체국 쇼핑 등 온오프라인 판매촉진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서울 목동, 코엑스에서 열린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와 박람회 30회 이상 참가하여 2억 7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무안=기동취재본부

## 영암 친환경 유기농 '학이 머문쌀' 새해 첫 미국 수출

### 지난해 2차례 이어 3번째 10t 선적

영암군은 최근 서영암농협친환경쌀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생산한 '학이 머문쌀' 10t의 미국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적식은 지난해 1차 10t, 2차 20t 수출에 이은 세번째로, 올해 첫 수출이다.

서영암농협은 올해 '학이 머문쌀' 200t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시장도 미국을 넘어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 쌀의 우수성이 알려지며 꾸준히 수출 길이 열리고 있다"면서 "영암 농산물의 수출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적식에는 편지형 농협전남본부 경제본부장, 임정빈 농협영암군지부장, 김원식

서영암농협 조합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목포시, 시민고충 해소 기여 하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목포시가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시민의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여러가지 이유로 변호사와 법률문제를 상담받지 못하는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목포시 고문-위촉 변호사(고문3, 위촉3) 6명을 선정해 매월 2회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300회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했고, 시민 총 1,534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올해 한차례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공동주택 및 부동산 관련 분쟁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했고, 오는 22일에 용당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및 목포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